

8/27/17

설교 제목: 신부의 아름다움(아가서 4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4:1-16

- (아 4: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 (아 4: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절관주** 아 6:6
- (아 4:3)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절관주** 수 2:18
- (아 4:4)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절관주** 아 7:4, 삼하 1:21
- (아 4: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절관주** 잠 5:19
- (아 4: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절관주** 아 2:17
- (아 4: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 (아 4:8)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 (아 4:9)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 (아 4: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 (아 4: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절관주** 시 19:10
- (아 4: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 (아 4: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 (아 4: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 (아 4: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절관주** 아 5:1

이제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한껏 칭찬합니다.

신랑에 의해 묘사된 신부의 모습은 모든 면에 완전합니다.

영화에 이른 이상적 교회, 곧 성도의 모습입니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 4: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신랑이 신부의 너울 속의 모습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와같이 어여쁘고도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교회 자체가 스스로 아름다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너울 속의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말합니다.

비둘기 눈은 단순하고 신실합니다.

단순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 손익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천진난만하게 충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면서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달라서 당장 하나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당신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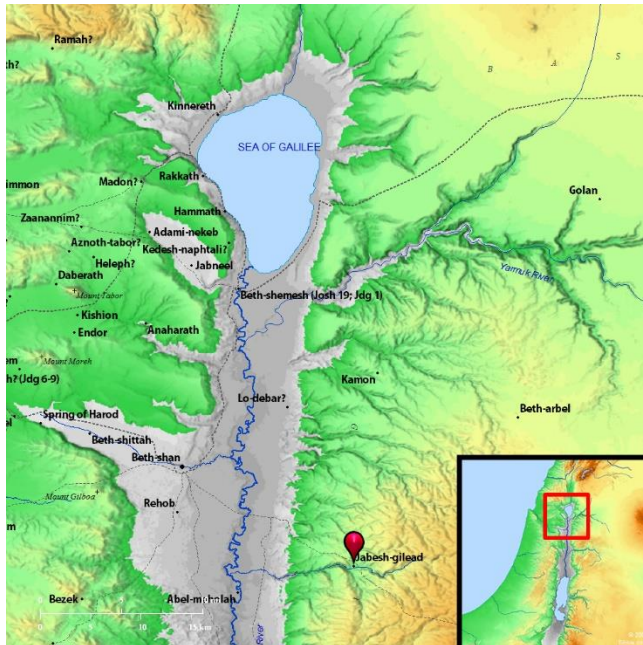
또 신랑은 신부의 머리털이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는 풍요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강 동쪽에 위치한 압복 골짜기의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돔 모양의 산간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 지방은 샘이 많고 겨울에는 비가 풍부하며 여름에는 이슬이 풍족하여 비옥합니다.

가축을 키우고 곡물을 경작하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뛰어난 유형의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풍요롭고 평화스러우며 상처가 치료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 납니다.

(아 4: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신랑은 신부의 이가 깨끗하고 가지런하며 쌍을 이루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치아는 음식을 씹어 위로 넘겨 소화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 4:3)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입술은 성도들의 의지를, 입은 말을 가리킵니다.

신부의 입술이 홍색 실 같이 붉고 길다는 것은 굳은 의지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며
입이 어여쁘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랑은 너울 속의 신부의 뺨을 가리켜 석류 한 쪽과 같다고 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너울 속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성도의 깊은 마음 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셔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지켜 보시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아 4:4)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신랑은 신부의 목이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데 그 망대에 일천 방패
아니 용사의 모든 방패가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목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성도의 믿음은 사탄과 악령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 4: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사는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참되게 권면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회는 곧 목양입니다.

(마 4: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랑은 신부에 대한 칭찬에서 방향을 돌려 자신이 행선지를 말합니다.

신랑은 몰약 산과 유향 산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음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가져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 때 병사들이 포도주에 타서 주었으나 예수님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돌아 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사해 주면서 썼던 향료입니다.

유향은 치료하는 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마치 자신들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통해서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마 5: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 5: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마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마 5: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의 개념이 구약 신명기의 물질적, 육체적 복에서 팔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오직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 (아 4: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있고 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었습니다.
-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솔람미 여인은 세상에서 예루살렘 여인들과는 다른 낮고 천한 계층의 여인입니다.
 자신을 꾸미기에 바빴던 예루살렘 여인들과는 달리 포도밭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해 피부가 검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여인들은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왕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낮고 천하며 솔람미 여인과 같이 피부가 검고 거칠어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해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받은 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지만 그 길은 천하보다 귀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4:8)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이제까지 왕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비둘기”라고는
불렀어도 “나의 신부”라고는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신부”라고 부르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지고 초청합니다.

'레바논'은 삼림이 울창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 산이며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레바논산의 봉우리들입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은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사는 레바논 산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레바논 산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고 악한 자들이 우굴거리는 위험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고 악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손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 4:9)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꿩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은 신부를 '나의 누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신랑은 신부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목의 구슬 한 꿩미로 마음이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한 번 본다는 것이 단순히 한 번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강에서 사용한 '한'과 같은 의미로 '큰' '깨끗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부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란 신부의 간절하고 순결한 눈길을 말합니다.

신부의 목에 걸린 구슬 한 꿩미는 신부가 전적으로 신랑에게 매인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없이 살 수 없는 스스로 매인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이와같은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십니다.

(아 4: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향기를 주십니다.

(아 4: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꿀과 젖'은 하나님 말씀을, '의복의 향기'는 '삶의 열매' '삶의 향기'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4: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호위하고 있는 잠근 동산입니다.

안으로부터 영원히 샘솟는 우물이이고 동시에 밖으로부터 침범받지 못하도록 덮어 놓은 우물입니다.

썩지 않도록 흐르되 다른 더러운 것들이 오염시킬 수 없는 봉한 샘입니다.

(아 4: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아 4: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각종 열매와 향, 기름을 얻습니다.

삶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아 4: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레바논에는 헤르몬 산을 비롯해 산들이 있는데 그곳들에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어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적이 없습니다.

샘물과 우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아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랑의 칭찬을 듣는 신부는 이 모든 것이 신랑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신부는 신랑이 와서 자신이 신랑으로 인해 맺은 삶의 열매들을 신랑이 만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에 북풍과 남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맺어 놓은 삶의 열매들을 만끽하시며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